

碩士學位 請求論文

# 北學派의 經濟倫理觀 研究

— 資本主義의 精神的 要素와 관련하여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李 丞 國

1985年度

# 北學派의 經濟倫理觀 研究

— 資本主義의 精神的 要素와 관련하여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李 丞 國

指導教授 高 性 俊

1985年 月 日

李丞國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고상우



副審

이만성



副審

고성호



1985年 月 日

# 目 次

I. 序 論 .....	2
1. 研究의 目的 .....	2
2. 研究의 範圍와 制限點 .....	5
II. 北學派 登場의 時代的 背景 .....	6
1. 社會經濟的 變動과 실학 .....	7
2. 性理學의 흐름과 실학 .....	13
3. 北學派의 登場 .....	15
III. 北學派의 經濟倫理觀에서의 資本主義의 精神的 要素 .....	18
1. 資本主義 精神의 一般的 意味 .....	18
2. 合理主義 經濟倫理觀 .....	23
3. 個人主義 經濟倫理觀 .....	33
4. 人間主義 經濟倫理觀 .....	37
IV. 結 論 .....	42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조선조 후기의 實學思想 가운데서 特히, 北學派가 지녔던 經濟倫理觀을 자본주의의 정신에 대응하여 考察하려는데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 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항과 더불어 論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항 당시 한국에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이를 담당할만한 社會階層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또한 개항 자체도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事實을 본 논문의 의도와 관련하여 注目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태동기로 지칭되는 개항에서 합방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知識層에서 개화파가 나왔으나 이들은 政策的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고, 한편 정책적 실권을 잡은 당시의 관료계층의 基本思想은 東道西器를 주장함으로써 경제적 自由思想이나 정치적 民主思想은 그들의 의식속에 성숙해 있지 못한 상태였다.

甲午改革에 있어서도 地稅의 金納化는 가능했었으나 소작료의 금납화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現物 소작료를 근간으로 하는 봉건지주 제도의 근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자본주의 초기 특징인 영리추구를 통한 農業生産性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외부로부터 資本主義的 요소가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또 내부의 일각에서도 開化思想이 움트기 시작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起點을 개항에서 찾는 것은 外來資本 특히, 일본자본의 침식에 의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來文化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도 한국의 사회경제의 內

註：1) 具本湖, “國家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韓國資本主義의 發展과 政府의 역할”, 「思想과 政策」, Vol. 1, pp. 35~36.

部에는 自生的인 근대지향적 여러 요소가 싹트고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임진, 병자 양난이후 英正祖 시대를 中心으로 하여 조선왕조 후기사회는 봉건적 사회구조의 틀을 벗어나 近代로 향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던 時期였다. 이러한 事實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해방후 오늘날까지 사학계에서 두드러졌으며, 그 결과 社會經濟史的 측면에서는 자본주의의 맹아를 발견해 나가는데 괄목할만한 成果가 있었고, 2) 社會思潮面에서는 思想的 흐름을 중요시하여 近代志向意識의 발견이라는 점에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3)

勿論, 그동안의 역사학계가 자본주의적 生産樣式의 싹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주체적, 자생적 발전’이 너무 앞세워 짐으로 인하여 그 싹이 실제보다도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외국 資本主義세력의 침략을 저지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 役割을 다하지 못한 싹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4) 그렇지만 문호개방으로 외국 자본주의 세력과 만나기 以前의 조선왕조 社會內部에서 自生的으로 일어난 近代志向的 사상과 자본주의적 生産양식의 싹을 찾으려는 노력은 해방이후 우리의 역사학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였음은 分明했던 것이다. 5)

그렇다면, 近代志向意識과 관련하여 볼 때 近代 또는 近代精神(modern mind)의 일반적 의미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정신이라는 의미는 다의적 개념이지만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말이다. 6) 첫째, 종교적 권위의 부정으로서의 현세적 人間主義이고, 둘째, 인간의 自然力을 自己目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合理主義이며, 셋째, 인간사회의 신분이나 지위에 깔려있는 비합리적 權威를 벗어나 自由와 平等을 실현하려는 人格의 자율성이다. 이와 같은 인간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註：2)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서울：一志社, 1977)를 참조.

3) 이러한 노력이 實學에 관한 研究에서 나타났다. 代表的으로는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서울：一潮閣, 1977)을 참조.

4) 姜萬吉, 「韓國近代史」(서울：創作과 批評社, 1985), p. 10.

5) 上揭書, p. 9.

6) 「世界哲學大辭典」(서울：教育出版公社, 1980), S.V. “근대.”

인격의 자율성등을 근대정신의 핵심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엘너스트 트렐취(Ernst Troeltsch)는 근대화의 이념형을 세가지 측면으로 分類하였다. 정신적 요인으로서 자연과학, 합리주의, 인간주의와 정치적 요인으로서 합리적 국가주권, 民主主義,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資本主義와 市民階級등이다. 이들은 서로 독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 본다.<sup>7)</sup> 그리고 막스 베버가 근대화의 과정을 合理化의 과정으로 본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같이 근대화의 문제는 단순히 組織이나 기술의 문제이기 보다는 좀더 나아가 倫理的, 정신적 측면의 문제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社會經濟史의 관점에서의 근대화는 봉건제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의 移行을 의미한다. 이는 근대화를 봉건사회의 해체에 의한 자본주의의 생성 발전과정으로 파악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근대적 의미라는 맥락에서 조선왕조 후기사회에서의 近代的 요소를 찾아 볼 때, 近代的 개념이 반드시 서구문화의 산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으로부터 導入된 近代文化 — 합리적 법률과 그 운영을 바탕으로 한 市民國家, 근대적 의미의 과학을 기반으로한 대규모의 공장기업,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近代的 教育 등 — 는 19세기 동양인으로서 새로운 文化였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유럽문화도 르네상스 및 종교개혁을 통하여 몇 세기간에 걸쳐 成長한 결과이며 18~9세기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근대문화의 모체가된 르네상스 및 宗教改革 이래의 새로운 文化 樣相은 유럽인과 접촉하기 이전의 많은 동양 민족국가의 역사과정에서도 비록 맹아의 형태였을 망정 이미 체험되고 있었던 형편이었다.<sup>9)</sup>

결국, 근대화의 과정이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맥락을 같이 할 때, 조선 후기 近代志向意識은 자본주의 맹아와 연결지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

註：7) Ernst Troeltsch : Das wesen der modern Geistes. 崔文煥, “막스. 웨버의 中國社會 및 儒教觀”, 「대동문화 연구」, 제1집(1963) : p. 331  
에서 재인용

8) 上揭論文.

9) 趙璣濬,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서울 : 대왕사, 1977), p. 34.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研究는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더불어 하나의 知的思潮를 이루었던 실학사상 가운데서 북학론자들이 당시 경제를 바라보았던 視角을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지향의식을 지니고 당시의 社會經濟的 변동과정에서 경제를 바라보았던 北學論者들의 時代精神을 經濟倫理觀으로서 규정하고,<sup>10)</sup> 이를 자본주의 정신의 일반적 요소로서 규명해 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 2. 研究의 範圍와 制限點

本 研究를 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北學派도 실학사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時代的 背景에 대한 고찰은 實學의 成立과 분리, 독립해서 논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論文의 제Ⅱ장에서 논의되어질 北學派 등장의 시대적 배경은 실학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서 고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Ⅲ장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의 일반적 의미를論하여 보고, 그에 따라 北學論者들의 경제윤리관을 자본주의의 정신요소에 대응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조선후기 실학에 있어서 18~9세기에 해당하는 북학파의 인물로서는 여러 사람이 있으나 그 중 代表的이라 할 수 있는 朴齊家, 朴趾源, 洪大容을 중심인물로 내세웠고, 아울러 柳壽垣을 추가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의도는 北學派의 資本主義의 정신적 요소를 고찰함에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의 起點을 조선후기로 바로 연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시의 北學派의 近代志向意識 속에서 자본주의 정신에 대응되는 倫理意識을 찾아 보려는데 있을 뿐이다.

註：10) 여기서 경제윤리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래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윤리의 개념은 *ethos, mores* 라는 어원에서 나왔다. 이러한 윤리의 개념은 사회적 풍습 또는 습관으로부터 條文化된 법률이나 명령, 또는 성정에 나오는 십계명, 유교적 삼강오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주변에 무수히 많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모두 도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 즉 윤리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근거를 둔 행위위에 성립하는 것이며, 윤리학은 바로 이러한 행위규범, 원리, 규칙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세계철학대사전」, S.V. “윤리학” 경제윤리(*economic morality*)에 대한 엄격한 개념 규정은 개념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 및 행동양식을 제약하는 윤리 태도내지 정신적 분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체적 경제윤리는 항상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諸條件에 의하여 제약되며, 반드시 윤리사상이나 종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요인은 經濟倫理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이긴 하지만 그러한 요인도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新經濟學辭典」(서울:大學堂, 1980), S.V. “경제윤리.”



## II. 北學派 登場의 時代的 背景

16세기 경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조선왕조의 統治秩序는 임진·병자의 兩亂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게 되었다. 17~18세기에 閔閔政治가 행해지면서 몰락양반이 발생하는가 하면, 농촌에서는 廣作에 의한 富農이 출현하였고, 그에 따라 농촌분화 현상<sup>11)</sup>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도시에서는 도고상인들이 상공업에 지배하여 富를 축적하자, 영세상인들은 몰락하고 物價가 앙등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현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문적 반성을 촉구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반성 속에서 새로이 일어난 학문이 實學이었다.<sup>12)</sup>

이러한 실학사상은 조선후기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는 일련의 思想體系를 말한다. 실학자들은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역사와 현실을 밝히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꼭 社會科學分野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을 지녔다.

이들의 研究對象은 다양했지만 공통적 기반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학문을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의 태도였다. 우선 農村을 토대로 하여 조선왕조의 현실을 改革하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들은 自營農民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토지제도나 行政機構, 군사조직과 같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이른바 經世致用의 學派였다.

農村의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한 사회의 개혁을 주장한 經世致用學派와는 달리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실학의 학파가 새로이 성장하였다. 이들의 학문은 점차로 활발하여진 商工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공업 발전을 통하여 社會의 번영을 이룩하여 보자는 利用厚生의 학문이었다. 이것은 實學의 새로

註: 11) 농민분해 과정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泳鎭, “實學思想의 勃興,”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4, p.128 이하 참조.

12)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77), p.277.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서울: 一潮閣, 1983), p.3.

운 발전이라 하겠는데 이 학문을 흔히 北學이라고 불려왔다.<sup>13)</sup> 따라서 조선조 후기 실학의 重商學派를 통칭하여 北學派라고 지칭한다.<sup>14)</sup>

실학이 발생하게 된 背景으로는 조선조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성리학 자체의 흐름의 변화라는 內在的 요인과 함께 서학 및 淸代의 학문적 업적인 外래적 요인도 作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外래적 요인이 일부 作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歷史的 조건은 조선 후기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內在的 요인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15)</sup> 따라서 실학의 발생배경을 논의할 때 있어서 우선 그 內在的 요인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의 社會經濟的 변동과 성리학 자체의 흐름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다음, 北學派의 등장과정을 論하고자 한다.

## 1. 社會經濟的 변동과 실학

### (1) 農民層의 分化

17세기로 접어들면서 농업은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 하였다. 특히 移秧法의 발달은 농민경제의 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모를 옮겨 심음으로써 벼의 성장이 촉진되고 생산량의 增大되기도 했지만, 이양법의 가장 큰 효과의 하나는 노동력을 덜게 된 농민들로 하여금 1인당 경지면적을 擴大시켰고, 이에 따라 廣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農家의 경지면적이 넓어지는 광작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가소득도 높아져 갔다. 自作農의 경우는 물론, 소작농도 더많은 농토를 경영할 수 있어서 차차 경제적 여유가 생겨났고 그 결과 자작농의 일부는 富農層으로, 소작농의 일부는 自小作農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自家消費를 넘어서 상품으로 쌀을 생산하는 기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양법은 논농사에 있어서의 벼와 보리의 二毛作을 가능하게 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농경기술의 발달은 밭농사에도

註: 13) 李基白, 前掲書, p. 281.

14) 金龍德, “重商論과 技術學의 導入論”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4, p. 259.

15) 姜萬吉, 前掲書, p. 155.

찾아 볼 수 있었다. 종래의 壟種法을 畝種法으로 바꾸어 간 것이다. 이러한 농법의 개발로 역시 보리농사에 있어서도 김매기에 노동력이 덜어지고 종자가 보호되어 소출이 많아졌다.

이양법의 보급과 견종법의 발달은 광작농업을 더욱 촉진시켰고, 광작농업의 발달은 한편으로 農村을 떠나는 농민의 수를 확대시켰다. 대체로 광작하는 농민은 富農이었으며 상품화를 위해 생산하는 기업농이었다. 이렇게 넓은 土地를 광작하는 富農層에게는 가족의 노동력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이양법과 견종법이 보급되면서 농촌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離農하게 되었으므로 임금노동자를 구하기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국 조선왕조 후기에 있어서 이양법의 발달, 광작농업의 발달은 富農層이 생기게 하는 반면, 농민들의 土地 이탈현상을 가져오고 농민분화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sup>16)</sup>

왕조 후기에 와서의 이와같은 영농법의 變化發展은 실학자들의 농학연구가 뒷받침된 것이었다. 농민들의 노력과 실학자들의 研究가 결합된 결과로서의 영농법의 발전은 농민소득을 향상시켰고, 농민층의 계층분화 및 그에따라 사회의식의 向上을 가져왔다.<sup>17)</sup>

## (2) 都賈商業과 화폐경제의 발달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상인으로서의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들 공인은 농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大同米를 代價로 미리 받고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貢物을 사서 납부한 뒤에 댓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점차 공인자본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울에서는 육이전, 지방에서는 場市의 객주나 旅關과 관계를 갖고 상거래를 하였으며 직접 수공업자들과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가지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관계상 독점적 도매상인인 都賈로 성장하게 되었다.<sup>18)</sup>

註：16) 上揭書, p.73.

17) 上揭書, p.74.

18) 李基白, 前揭書, p.272.

都賈는 일반 민간상인의 경우, 그들의 資本力과 상술을 근거로 전개한 독점사업의 행위를 말하고, 市廳商人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매권, 즉 禁亂廳權을 근거로하여 영위한 독점사업의 행위 또는 그 조직을 뜻한다.<sup>19)</sup> 대체로 17세기 초엽에 육이전에 한하여 도고상업을 할 수 있는 禁亂廳權이 주어졌지만 이후 도고상업은 점차 一般市廳에게도 번져나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육이전 이외의 대부분의 시전이 모두 도고 상업을 영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 私商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갔다. 이들의 상업활동은 자기들의 근거지에 한정하지 않고 중요한 交易路를 따라 전국의 시장에 펼쳐 있었다. 이러한 交易路를 살펴보면, 첫째, 경상도 동해안의 여러 시장과 강원도 및 함경도의 여러시장이 東海의 해상교역로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유통망이다.

둘째로, 서울,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의 여러 市場이 陸商交易路에 의하여 연결되는 유통망인 바, 특히 두각을 나타낸 것은 개성상인이었다. 이밖에 매우 중요한 세째 유통망은 한강을 통하여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의 여러 시장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江上交易路인데, 여기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서울의 거대한 私商의 집단인 江商들이었다. 이러한 상업자본가들은 각 지역간의 가격차를 통하여 差額利益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先占과 買占 및 공급독점을 통하여 도고활동을 하고 있었다.<sup>20)</sup>

실학자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市場圈의 형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촉진하였으며 그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燕巖 朴趾源, 楚亭 朴齊家등은 陸上流通網의 전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우선 用車論과 도로정비론을 펴고 있었으며, 江上 유통망 및 해상유통망의 개선을 위하여 用船論을 적극 제창하고 있었다.<sup>21)</sup>

조선왕조 후기 상업자본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동과의 관계를 맺는 또 하나의 흐름은 금속화폐의 발달이었다. 17세기 중엽에 들어오면서 일부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부터 금속화폐가 실제로 사용되어 갔지만, 사실 이 무렵에는 금속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만한 조건이 성숙되고 있었다. 실물화폐로 사용되고 있

註 : 19)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成長" 「한국사 연구」, 1 (서울 : 한국사연구회, 1968) p. 85.

20) 金泳鎭, 前掲論文 p. 153.

21) 上掲論文.

있던 쌀과 포목 중 쌀은 더욱 불편했고 실제의 교환에는 포목이 많이 통용되었는데, 화폐로 유통되고 있는 포목은 실제 옷감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麤布여서 실물화폐가 아닌 불편한 명목화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실물화폐의 기능을 잃추포가 화폐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목화폐로서의 동전이 유통될 조건이 성숙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1670년에 저술된 柳馨遠의 「礪溪隨錄」에서 “지금 추포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돈(錢)이 유통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의 추포는 겨우 한두 승새(升)여서 포목이 되지 못하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지만 교역에 쓰이기 때문에 금지시켜도 없어지지 않는다.”한 것은 동전이 유통될 만한 경제적 조건이 성숙했음을 내다보고 한 말이었다.<sup>22)</sup>

조선왕조 숙종 4년(1678년) 상평통보를 주조한 이래 동전의 유통은 국내 전역으로 擴大 보급되었으며 화폐유통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보급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영향은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우선 상업의 발달과 농민의 土地이탈 현상이었다. 17세기 후반부터 동전이 法貨로 유통보급되자 상업의 발달추세는 한층 가속화 되었다. 인구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각종 산업전반에 걸쳐서 발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통적인 統制를 벗어난 자유상인의 계층은 성장, 발전 되었고 각지방의 場市가 급격히 증설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거의가 자급자족이고 物物交換이 지배하던 농촌사회가 동전 통용이후 화폐경제권으로 포섭되었다. 이로써 전통적으로 農事를 천직으로 알고 그것에 安分해 왔던 농민들은 영리감각 내지는 사행심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중에는 적은 노동력을 들이고 보다 많은 利益을 취하기 위해 農機具를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한편 동전이 유통 보급됨으로써 농업생산의 위축은 兩班支配階級이 전통적인 土地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한 經濟力을 약화시켰다. 이는 곧 상업발달을 촉진시킨 화폐경제의 발달이 양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

註 : 22) 姜萬吉, 前掲書, p.96.

23) 元裕漢, 「朝鮮後期貨幣流通史」(서울: 正音社, 1979), pp.127~13.

한 사회경제적 계단으로 생각되었다.

금속화폐의 유통은 또한 중세적인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傳統的인 意識構造를 변화시켜갔다. 土地所有의 동기가 권력에서 경제력으로 바뀌어 감으로써 양반층의 상당수가 몰락해 가는 반면, 신분이 상품화하여 평민층의 신분상승, 노비층의 身分解放이 확대되어간 것이다. 요컨대, 금속화폐의 유통은 중세적 신분체제와 생산구조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움트게 하는 기초조건을 만들어 간 것이다.<sup>24)</sup> 실학사상은 화폐경제, 상품경제와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화폐,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sup>25)</sup>

### (3) 신분질서의 동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비록 왕조의 교체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支配層으로서의 양반계층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나는 한편 전쟁후의 양반사회는 지속적인 당쟁을 통하여 그 자체를 分化시켜 갔다. 양반의 극히 一部分만이 권력의 핵을 이루면서 권력을 통한 대토지 소유자로 변해 갔고, 다른 일부는 鄉班, 土豪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권력의 주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일정한 地位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또다른 상당수의 양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반 농민층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몰락해 갔다. 일반적으로 殘班으로 불리는 양반층이 그들이었다.

이들 몰락양반은 그 사회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가 실학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민편에 가까와지기는 했으나 아직 그들과 일체화 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실학자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정치권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권으로부터 축출되어 있었던 南人들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다.<sup>26)</sup>

한편 良人의 신분이 대부분인 농민층은 조선왕조 후기를 통해 꾸준히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면서 그 社會經濟的 지위를 높여 갔다. 따라서 그 정치의식도 한정된 조건에서나마 단계적으로 향상되어 갔다. 우선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통하여 良

註： 24) 姜萬吉, 前掲書, p.99.

25) 上掲書, p.153.

26) 李基白, 前掲書, p.278.

인의 일부가 양반층으로 상승하는 길이 비교적 넓어졌다. 官文書의 소각, 戰功, 軍량미의 헌납, 空名帖의 구입 등으로 良人層의 일부가 양반신분으로 상승한 사실은 良人層을 분화시키는 한편 양반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作用을 하였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화는 양반층으로의 상승보다도 이른바 양극분화 현상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농민층의 일부가 상업적 농업, 合理的 영농방법을 통해 새로운 庶民地主로 성장하거나 자영농민적인 中小商品 생산자층으로 발전하는 한편 대다수의 농민층은 소작농민이나 일부 임금노동자로 떨어져 갔다.<sup>27)</sup>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던 奴婢계급의 경우도 그 신분해방의 길은 빠른 속도로 넓혀 갔다. 公私의 노비들도 전쟁공로를 통해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戰禍로 인한 노비문서의 소각, 피역과 도망등으로 신분해방을 얻는 길을 크게 확대시켰다. 또한 職牒을 사서 족보를 고치고 地位를 향상시킴으로써 軍역을 면하기도 하였다.<sup>28)</sup> 17세기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되어간 奴婢의 從母法은 신분해방을 법제적으로 擴大해 나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up>29)</sup>

이와같이 조선후기의 신분질서의 붕괴에 따른 社會現實에 직면하여 實學者들은 신분의 하향과정에 놓여 있는 양반층의 생계대책과 함께 상향과정에 들어선 서민층의 利益을 보장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對策을 理論적으로 추구하고였고,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形成해 나갔던 것이다.<sup>30)</sup>

註： 27) 姜萬吉, 前掲書, p.115.

28) 丁若鏞, 「牧民心書 I」, 茶山研究會譯註(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pp.143 ~ 145.

29) 이와같이 신분제의 변동과정을 보면 영조 14년 상주지방의 경우 호주를 중심으로 그 先下代의 신분 職役의 변동은 양반 30.6%, 평민 68.7%, 천민 50%로 전체 50.8%의 변동을 가져왔다. 영조 3년(1727)부터 고종 4년(1867) 사이의 울산의 경우는 양반이 26.9%→65.48%, 평민 59.78%→33.96%, 노비 13.9%→0.56%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鄭萬祚, 「身分制의 動搖」, 「韓國史入門」, 韓國史研究會編(서울: 知識産業社, 1982), p.372.

30) 姜萬吉, 前掲書, pp.153~154.

## 2. 性理學의 흐름과 實學

사상은 時代的 현실 속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 정당하게 대처하여 의미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실천적 規準으로 정의된다.<sup>31)</sup> 따라서 이 때의 사상은 각 시대의 개인, 사회, 민족, 인류속에 잠재하여 그 時代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일반을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혁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말에 수입된 性理學은 조선왕조에 들어 오면서 국가의 理念으로 채택됨과 동시에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적용되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지배층 知識人의 知的 상황에 따라 변용되곤 하였다.

성리학은 고려말 신흥 개혁파의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어 李齊賢→李穡→鄭夢周 등으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조선왕조에 오면서 鄭道傳에 의하여 통치이념으로 채택 되었다. 조선왕조 건국초기의 執權層 속에서 특히 鄭道傳과 같은 건국공신은 불교배척의 準據理論으로 성리학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심오한 철학적 이론을 研究하였다. 한편, 현실의 정치, 경제제도의 문제를 性理學과 결부시켜 體制改革理論으로 발전시키는 등, 形而上學과 통치이론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하였다.<sup>32)</sup>

그러나 이후 성리학과의 학맥에 대한 정통을 論할 때, 조선왕조 건국에 참여한 鄭道傳, 權近, 변계량등으로 연계하지 않고 조선왕조 건국에 참여하지 아니한 鄭夢周로부터 吉再, 金淑滋, 金宗直,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로 이어지며 이와같은 성리학 사상은 政治를 초월하여 正義思想으로 그 정통성이 계승된다.<sup>33)</sup>

성리학은 16세기에 들어 오면서 退溪, 栗谷을 비롯하여 많은 學者들을 배출시킴과 동시에 명실상부하게 조선조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 趙光祖 이후 退溪, 栗谷이 탄생한 16세기에는 性理學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한국 사상계는 균형을 배출한 황금시대였다. 退溪의 性理學 사상은 일본에 건너가 학술사상과 敎學思想의 연원을 이루었고, 栗谷의 철학사상은 栗谷의 생존 당시부

註：31) 「世界哲學大辭典」, S.V. “사상”

32) 박중석·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서울: 평화출판사, 1982), p.119

33) 柳承國, “韓國儒學思想概說”, 李相殷·李丙燾外譯, 「韓國의 儒學思想」(서울:三省出版社, 1983), p.28~29.



더 그 명성을 中國에 드날려 동방의 천재적 철인으로 그 빛을 발하였다.

退溪哲學의 중심문제는 理에 치중하는 理 우위설이다. 이 理는 內在的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理는 形而上이요, 氣는 形而下로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니만큼, 理와 氣를 혼합해서 一體一物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退溪의 理는 지극히 존귀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높이는 동시에 天理는 萬事萬物을 명령하는 자리이고, 아무것으로 부터도 명령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sup>34)</sup> 이와는 달리 栗谷은 현실을 달관하고 또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방안이 항상 뛰어났던 것은 그의 확실한 지식과 명석한 판단력에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栗谷은 理論的 측면에서 性理學의 논리적 명석성과 현실적 측면에서의 實學<sup>35)</sup>의 사실적 整合性이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철학적으로 남다른 면이었다.

栗谷의 학문은 現實과 유리될 수 없었고 현실을 바로게 처리하면서 學問을 깊이 研究하였다. 그는 성리학을 體로 하고 실학을 用으로 삼았다. 이념적 측면에서의 理와 현실적 측면에서의 氣와의 융합이 栗谷哲學의 特徵을 나타내는 근본정신이었다.<sup>36)</sup>

그러나 이러한 性理學思想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후 社會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부조리가 드러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전면적이고 本質的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영의 지도원리였던 성리학은 그 合理的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이르러 性理學의 명분론은 당쟁을 合理化시키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적 秩序에 의한 정제된 社會에 만족하여 안주하였던 성리학으로 부터의 한계를 벗어나, 일부 학자들은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社會를 창조하고자 實事求是의 자세를 새롭게 제창하였다. 그리고 경세치용, 이용후생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다시 강조하게 되었는데<sup>37)</sup> 바로 실학의 문제였다.

註 : 34) 上揭書, p.33.

35) 政治, 經濟, 教育, 國防等 현실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上揭書, p.37.

36) 上揭書, p.39.

37) 尹蘇淳, “朴世堂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韓國研究室編, 「實學思想의 探究」(서울 : 玄岩社, 1981), p.16.

실학사상을 한마디로 확일적으로 定義하기는 어렵다.<sup>38)</sup> 그렇지만, 실학은 현실개혁 사상이었으며, 조선왕조 후기사회에서 노정되고 있던 각종 부조리를 제거하여 民生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열의가 함축된 改革理念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공약수는 조선후기 역사적 모순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知識人들에 의하여 제시된 脫性理學的, 近代志向的 개혁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 3. 北學派의 登場

北學이라는 意味는 朴齊家の 「北學議」에서 비롯되었다.<sup>40)</sup> 朴齊家는 「北學議」를 지으면서

“그 나라(청) 습속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만한 것과 날마다 편리한 것을 듣고 보는데로 붓으로 적고 또 시행하여서 이로운 것과 폐가 되는 것을 붙여 풀이한 다음 孟子가 陳良을 말한 것을 따라서 北學議라 이름하였다.”

고 하였다.<sup>41)</sup> 陳良은 남쪽 초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道를 좋아하여 북으로 중국에 유학하여 배웠다는 것이다.<sup>42)</sup> 따라서 북학은 단순히 북쪽의 중국만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며, 중국의 선진문명을 배워 그와같이 文明한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朴齊家도 청조문명의 선진성을 인정하고 배움을 원한다는 뜻에서 북학을 주장한 것이다.

註：38) 실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실학이 성리학이라는 입장에서 실학을 그 이상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정주학 본래의 정신으로 복귀하는 것 그 자체가 실학이지만, 시대에 따라 단순한 사상적 복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옛것을 찾아서 새것을 마련한다는 사상의 발전 원리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근, 「이조후기 사회와 사상」(서울: 율류문화사, 1981), p.385. 다른 하나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입장인 新思潮로서, 자유성, 과학성, 현실성을 가진 학문이며, 달리는 비판정신, 실증정신, 실용정신으로 보는 것이다. 千寬宇, 前揭書, pp.102~103. 이러한 두가지 견해가 각기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학을 당시의 주자학적 세계관에 매몰되지 않고, 實用, 實證, 近代志向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尹絲淳, 前揭書, pp.13~17. 李佑成, 前揭論文, p.4.

39) 姜萬吉, 前揭書, p.157.

40) 金龍德, “貞森 朴齊家 研究”, 「朝鮮後期 思想史研究」(서울: 乙酉文化社, 1977), p.141.

41) 朴齊家, 「北學議」, 李翼成譯(서울: 乙酉文化社, 1983), p.24.

42) 「孟子」, 滕文公章編(上), 김정탁역(서울: 한국자유교양추진회, 1969), p.147.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시대사조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으며 용감한 혁신책이었다. 병자호란후 조선은 청나라에 대하여 事大의 예를 취하면서도 청국을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은 近世史上 커다란 치욕이었다. 1627년 정묘호란 이후 형제지국의 맹약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고, 歲幣의 증가를 요구하는 강압정책은 청나라를 배척하는 감정을 한층더 높였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1636년 말의 청태종의 침입과 이듬해 정월 인조의 항복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 병자호란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랑캐로서 멸시해온 청나라를 명실상부한 君臣關係로서 우호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좀처럼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明나라가 노쇠하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春秋大義의 명분을 기초로 하는 숭명반청 사상은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 對淸講和를 둘러싸고 主和, 斥和의 의견대립도 숭명반청 사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것이었다.<sup>43)</sup>

세월이 흐를수록 호란에의 회고는 반청감정을 고조시켰다. 효종이 즉위하자 북벌론이 일어났다. 尊皇攘夷의 반청사상은 一世를 뒤엎었고, 이미 도도한 大河를 이루었다.

“明이 망한지 벌써 130여년이 경과되었거늘 어찌서 지금까지 崇禎연호를 쓰고 있을까. 청이 들어와서 중국을 차지한 뒤에 先王의 제도가 변해서 오랑캐가 되었으니 우리동녘 수천리 강을 경계로 나라를 이룩하여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켰으니 이는 明의 황실이 아직도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말함이라.”<sup>44)</sup>

라고 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자랑으로 알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오면서 정통 주자학파의 小中華思想은 밖으로 부터의 새로운 도전을 받으면서 동요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호로라고 멸시하던 청조가 康熙, 雍正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文化的으로도 여러가지 공리적인 文物制度를 발전시켜 미증유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조선왕조가 유일하게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로 이용했던 조공의 연행사절 눈에 비친 청조지배하의 中國은 지금까지 상상의 세계에서 그

註: 43) 박충석, 유근호, 前掲書, p.127.

44) 朴趾源, 「熱河日記1」, “압록강을 건너며”, 임정기역(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0) pp. 15~16.

러본 관념적 중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소중화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청조를 다시 보려는 일련의 학자들이 바로 北學思想의 원류들이다.<sup>45)</sup>

이들은 주자학의 사변적 이론에 깊이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전적으로 생산력을 높여 백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등에 관심을 쏟았다. 이들의 학문적 경향도 형이상학적 이론의 귀결에서가 아닌 것은 물론이며, 어디까지나 현실 체험으로부터 성립된 문제의식이요, 문제해결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나온 理論體系였던 것이다.<sup>46)</sup> 또한 이들이 배우고자 한 바는 사대에 입각한 청의 文化가 아니라 실상에 있어서는 先進的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데 目的이 있었으며<sup>47)</sup> 그 주장의 근거에는 봉건적 개량주의를 넘는 近代的인 개명적, 合理的 정신이 보였던 것이다.<sup>48)</sup>

註：45) 박충석, 유근호, 前掲書, pp.142~143. 북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박제가,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유득공, 서이수등이다. 『韓國史大辭典』, (서울:教育出版公社, 1979) S.V.『역학』.

年代	洪大容	朴趾源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其 他
1724						英祖 即位
1731	出 生					
1736						清, 乾隆元年
1737		出 生				
1741			出 生			
1748				出 生		
1750					出 生	
1762						丁若鏞 出生
1763	燕行<湛軒 燕記>					李瀾 歿
1765	燕行<湛軒 燕記>					北京에서 四庫 全書編纂 시작
1773	燕官으로 첫 仕官					
1774	燕官으로 첫 仕官					正祖 即位, 奎章 閣 開設
1776			檢 書 官 燕	檢 書 官	檢 書 官 一次 燕行	
1778		燕 行 <熱河日記>			一次 燕行 <北學義>	
1780						李承薰, 北京에서 洗禮 받음
1783	歿	燕官으로 첫 仕官				金正喜 出生
1786					二 · 三 次 行	
1790				一次 燕行		
1793			歿			
1794						周文謨 神父母
1800						純祖 即位
1801				二次 燕行	四次 燕行	李承薰 死刊 丁若鏞 流配
1805		歿			歿(?)	金正喜 燕行

※ 출처 : 천관우등, 「조선실학의 개척자 10인」(서울:신구문화사, 신구문고, 1983), p. 123.

46) 박충석, 유근호, 前掲書, p. 156.

47) 李成茂, 「朴齊家の 北學議」, 『實學研究入門』, p. 283.

48) 金龍德, 前掲書, p. 66.

### Ⅲ. 北學派의 經濟倫理觀에서의 資本主義의 精神的 요소

우리는, 近代志向的이고 合理的 정신을 지녔던 北學論者들이 당시의 경제를 바라보았던 倫理觀에서, 자본주의의 정신적 요소를 어떠한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資本主義 정신의 일반적 意味를 살펴 본 후 그러한 요소들을 合理主義, 個人主義, 人間主義라는 측면에서 각각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資本主義 精神의 일반적 의미

##### (1) 資本主義의 의미

有史 이래 인류는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왔다. 이러한 生産活動은 개개인이 홀어져 행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社會를 形成하면서 이룩해 왔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근본적 구조인 生産樣式은 또한 시대에 따라 현저히 달라져 왔던 것이다.<sup>49)</sup>

근대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등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나타난 資本主義는 근대의 독자적 生産樣式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sup>50)</sup> 이 경우 생산양식이라는 말은 우선 역사의 일정한 단계에 대응한 「생산-소비」라는 경제 생활의 근본적 社會構造라 할 수 있다.<sup>51)</sup>

註: 49) 이른바 경제발전단계설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s)에 관한 연구는 독일의 역사학파에 의해 시작되었다. List, F는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5단계설로 설명하고 있고 Hildebrand, B는 교환형식을, Schmoller, G는 정치조직의 발달을 기준으로, Bücher, K는 流通過程을 중심으로 각 단계를 수립하였다. 2차 대전후 근대 경제학자인 Rostow, W는 「경제성장의 계단계 (The str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에서 경제성장단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의한 원시공동체, 고대노예제, 자본주의 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발전 단계 제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新經濟學辭典」 S.V. 「경제발전단계설」

50) 오오쓰까 히사오,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송주인역(서울: 한벗1981), p. 17.

51) 생산양식을 生産方法이라고도 하며 人間の 생존에 필요한 生産手段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近代의 독자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이전의 경제체제나 동시대의 非資本主義의 체제와는 그 기능에 있어서 성격을 달리하는 독특한 경제체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라는 用語 자체는 그 사용방법에 대한 共通의 척도도 없이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sup>52)</sup>

첫째, 상품생산이 全社會的 규모로 일반화 되어 있고, 따라서 경제생활의 일반적 토대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상품생산은 단순한 독립 小生産者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에 종사시키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노동력을 商品으로써 資本家에게 팔고, 그를 위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다.

## (2)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맹아

자본주의의 개념을 보다 分明히 하기 위하여 봉건적 생산관계인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의 社會로 이행할 때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양식에서 볼 때, 낡고 새로운 두가지 생산양식의 대립과 교체를 내포하는 段階的 이행기에는 언제나 경제적 利害關係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이전인 전통적 생산양식에서는 土地의 소유가 경제적 利害의 기초를 形成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富의 기초적 형태인 범주적 이행이 「土地로부터 商品으로의 이행」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그 이전 社會의 이행과정<sup>53)</sup>에 비하여 그 변혁이 한층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생산양식 아래서는 富의 기초적 형태가 土地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해관계 가운데는 파생적 형태로서의 상품도 포함되 있으며,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서도 그 逆이 成立하는 것이다. 이처럼 土地로부터 상품으로의 富

註: 52) 오오쓰까 히사오, op. cit, p. 18.

53) 예를 들어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옮겨지는 전통주의에서는 富의 기초적 형태 移行이 물론 土地에서 土地로 옮겨졌던 것이다.

의 기초적 형태의 범주적 이행은 극히 복잡한 뒤얽힘 속에서 교체되는 현상을 취하게 된다.<sup>54)</sup>

둘째, 서구 중세의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고 근대사회를 形成하는데 추진력이 되었던 것은 中産的 生産者層의 대두였다.<sup>55)</sup> 이들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에 있어서 농촌공업으로부터 성장했으며 근대적, 合理的 分業관계인 局地的 시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sup>56)</sup>의 해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속에서 상품생산과 상품유통이 발달하게 되었고, 나아가 화폐경제의 발달은 공동체의 생산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제적 생산관계를 촉진시켰는바.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담당자가 바로 중산적 생산자층이었다.<sup>57)</sup> 이들은 1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문예부흥과 휴머니즘 정신을 계승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이룩해 나갈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면서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셋째, 봉건제에서 資本主義에로의 이행기에는 생산양식이 각기 일정한 정도의 발달을 이룩한 사회적 分業을 토대로 하고 있고, 또 그것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업관계는 사회주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의식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이고도 自然發生的인 토대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각 부분의 불균등한 발전과 복잡성을 띠며, 그러한 복잡성 가운데서 각 개인은 그의 視野가 分業上의 특수한 지위와 私的 이해관계에만 局限되어 있기

註: 54) 오오쓰까 히사오, op.cit., p.182. 이 경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함에 따라, 생산력의 관점에서 본 富의 質料的 形態를 문제삼을때, 土地가 모든 역사 단계를 통하여 항상 기초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은 土地를 주요 生産手段으로 하여 일정한 정도의 농업잉여를 기초로 할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을 농업=토지 문제를 제외하고 오로지 상업=공업의 발달로만 설명하려는 마르크스의 초기 브르지와 혁명론은 부당하게 추상적인 방법이며, 이미 출발에서 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론」, 제3부 47장 참조.

55) 大塚久雄, “資本主義發達史의 基礎視角” 朴玄燦 編譯, 「資本主義發達史 研究序說」 (서울: 한길사, 1981), pp.19~21.

56) 공동체는 토지점취를 위한 단위 집단으로 이해된다.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土地를 점취하고 이 土地에 의해 생산활동을 영위하며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오오쓰까 히사오,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p.19.

57) 오오쓰까 히사오, 「공동체의 기초이론」, 이영훈 역 (서울: 들베개, 1982), pp. 25~48.

때문에 전체과정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없게 된다.<sup>58)</sup> 따라서 여러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총체는 그들의 利害를 넘어선 客觀的 過程으로 化할 뿐만 아니라, 외측으로 부터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方向을 강제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인간소외의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sup>59)</sup>

결국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기에는 現實의 개인들 속에서 흔히 낡고 새로운 두 종류의 이해와 社會的 性格이 共存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성격의 동요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제기한 에토스(ethos)의 意味가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sup>60)</sup>

이와같이 봉건제로 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기에는, 예를들면 「농민→매뉴팩처(manufacture) 경영자→상인→지주」라는 형태의 사회적 상승기류 현상이 전기간을 통하여 다소간 일반적 형태로 발견하게 된다.<sup>61)</sup> 그리고 봉건제의 해체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전은 도시의 성장과 결부하게 된다.<sup>62)</sup>

### (3) 자본주의의 정신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近代 서구 경제사회에서의 생활태도를 말한다.<sup>63)</sup>

독일의 역사학과의 경제학자 브랜타노는 자본주의 정신을 자본가가 품고 있는 심리적 태도에서 찾고 있다. 심리적 태도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이

註: 58) 오오쓰까 히사오, 「자본주의사회의 형성」, p.185.

59) 마르크스에 있어서 資本主義 초기 단계의 역사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小生産者가 자기 생산으로 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 온 역사로 규정한다. 즉, 소생산자가 자기의 생산수단으로 부터 추방되어 결국 市場에서의 자기의 노동을 팔게된 역사로 보는 것이다. A.Giddens,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1971), 林榮一·朴魯英譯(서울:한길사, 1982), p. 65.

60) 오오쓰까 히사오, op.cit., p. 187. ethos란 윤리적 성격, 몸에 배어 있는 倫理的 觀念을 의미한다. Max weber, *The Pre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p. 51.

61) 오오쓰까 히사오, op.cit., p. 188.

62) 마르크스는 자율적인 도시 공동체의 성장과 더불어 Capitalia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Engels에게 보내는 Marx의 편지”, 1854년 7월, *Selected Correspondence*(1934), p. 72. A.Giddens, op.cit., p.65. 재인용.

63) 「新經濟學辭典」, S.V. “자본주의 정신.”



윤을 얻으려는 영리추구욕을 의미한다.<sup>64)</sup> 그리고 이러한 영리추구욕은 활동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무릇 돈벌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베버는 브렌타노와는 달리 규정하였다. 영리심이 資本家の 屬性이기는 하나 보다 폭넓게 보아, 貨幣利得을 계산하고 기대하는 심리적 태도이며, 이는 자본가는 물론 임금노동자에게도 共通的으로 지니는 심리로써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영리심은 윤리적 색채를 띠지 않을 때 비로소 자본주의 정신이 된다고 보았다.<sup>65)</sup>

베버에 의하면, 화폐취득을 目的으로 하는 이윤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자본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본주의는 불합리한 欲求를 억제하고 合理的 作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66)</sup>

그는 자본주의 成立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를 중요시 하였다. 그는 영국의 산업혁명 직전에 存在했던 전설하고도 합리적 사고를 지닌 中産者層, 즉 市民階層에 착안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산적 생산자층은 近代資本主義를 成立시킨 역사적 담당자로서 理想型(ideal typus)에 해당되는 것이었다.<sup>67)</sup>

베버가 意味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정신을 하나의 자료로 제시한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젊은 사업가에게 주는 충고(Advice to a young tradesman)」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sup>68)</sup> 프랭클린이 사업가에게 주는 충고에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것은 信用할 수 있는 성실한 인간과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生活目的으로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프랭클린의 말 속에는 倫理的 색채를 띠는 생활원리로서의 의미가 깃들여 있는 것이다.<sup>69)</sup>

베버는 경제상의 자본주의적 형태(자본주의 제도)와 그 경영상의 정신(자본주의 정신)과는 일반적으로 알맞는 適合關係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註：64) 鄭允炯, 「西洋經濟思想史研究」(서울：創作과 批評社, 1981), p. 156.

65) 上揭書.

66) Max weber, op. cit., p. 17.

67) Ibid., p. 71.

68) Ibid., pp. 48~50.

69) Ibid., pp. 166~177.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法則的 의존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sup>70)</sup> 그렇지만 켈비니즘에서 발견되는 금욕적 신앙은 자본주의 形成에 끼친 영향을 그 어떤 요인 보다도 중요시 하고 있다.<sup>71)</sup> 이러한 켈비니즘은 첫째, 人生과 그것이 주는 쾌락의 무한한 향락에 반대하였고, 오직 오락은 합리적인 목적, 즉 육체활동에 필요한 휴양을 위해서만 이용되었다. 둘째, 이들은 시민적 가정의 맑고도 건전한 행복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外飾과 外觀을 과시하는 중세기사의 화려함이나 봉건적 귀족 생활을 영위하려는 모험상인과도 달랐다. 셋째, 직업노동을 최상의 금욕적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금욕적 강제 저축에 의한 資本形成이 投資形態로서의 富의 생산적인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결국, 베버는 자본주의의 성립기에 있어서 역사발전의 추진력으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中産者層의 정신적 분위기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찾아 긍정적 의의를 부각시켰던 것이다.<sup>72)</sup>

그렇다면 중산자층이 지녔던 정신적 분위기는 어떠한 요소로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개념을 分明히 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로서는 合理主義, 個人主義, 人間主義의 세가지 요소로써 나누어 볼 수 있겠다.<sup>73)</sup> 이처럼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이 세가지 요소는 節을 달리하여 고찰하고, 세가지 요소에 대응하여 北學論者들의 經濟倫理觀을 論하고자 한다.

## 2. 合理主義 經濟倫理觀

### (1) 합리주의의 意味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버는 근대 산업자본주의의 형성기반이 서양의 합

註：70) Ibid., p. 64.

71) Ibid., pp. 166~177.

72) 鄭允炯, 前掲書, p. 160

73) 朱東完, “儒教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碩士學位 論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2), pp. 24~30.

리주의 정신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合理主義 개념은 베버의 자본주의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 테마로 등장한다. 이러한 합리주의는 대체로 경험과학적 합리성과 倫理的 合理性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up>74)</sup>

#### ① 경험과학적 합리성

경험과학적 합리성은 근대의 경험과학이 수학화되고 실험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합리성은 여기에서 가설의 검증 및 실험의 방법을 통하여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實現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과학적 연구에서 근거를 획득하는 기술이 合理性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과학적 합리성은 종교외적인 합리성의 형태로서 무엇보다도 과학적 사고에 의한 生活의 合理的 조직과 기술화에서 발견되는 것이다.<sup>75)</sup>

#### ② 윤리적 합리성

윤리적 합리성은 베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종교내적인 윤리의 문제로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사상이 자본주의 발달에 미친 영향력을 그의 모든 學問的 정열을 바쳐 研究하였으며, 그 결실로 나타난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

註: 74) 베버는 합리성의 개념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의미의 내용이 대체로 세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경험과학적 합리성과 의미해석적 합리성, 윤리적 합리성이다. 심윤종, “자본주의, 합리성 그리고 인간,” 「현상과 인식」, 제 4 권 4 호(1980 겨울): p. 55. 그러나 의미해석적 합리성은 베버가 1919년에 쓴 “이해 사회학의 개념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잠시 소개되고는 다시는 어느 곳에서도 소개되지 않는 개념으로서 요컨대, 일상적 이해의 합리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심영희, “의미해석적 합리성과 합리화,” 「현상과 인식」, 同號, p. 78. 따라서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합리성의 개념은 경험과학적 합리성과 윤리적 합리성으로 볼수 있다. “소명, 합리성 그리고 인간,” 「현상과 인식」, 同號 p. 72.

또한 합리주의 형태는 어떠한 유형이든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역사의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人間의 역사를 合理化 과정이라 할때 베버類의 시각에 입각하여 본다면 유교의 경우에도 윤리적 합리성인 가치합리적 思考와 경험과학적 합리성인 目的 합리적 사고의 양면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천도관념에 의거한 규범주의적 지향에서 볼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후자의 측면에서는 천도관념에 의거한 지배의 합리화 과정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박충석, “‘동양사회 인식’에 대한 호의 논문,” 「현상과 인식」, 同號, p. 161.  
75) 심윤종, 前揭論文, p. 55.

여기에서의 倫理的 合理性이란 도덕적 행위의 심급으로서 내면적인 자기 통제의 한 수단이며 자기의식의 파악방법인 것이다. 즉 가치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sup>76)</sup>

## (2) 北學派의 合理主義的 요소

### ① 경험과학적 합리성

북학파의 경제윤리관에서 경험과학적 合理性의 요소를 기술, 자본, 교역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려 한다.

첫째, 기술의 문제는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이든 침체된 농업생산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든 간에 당시 조선왕조의 입장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북학파가 기술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당시에는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낙후할대로 낙후한 국내 技術水準이었다.

박제가는 북학의 재부론에서 공업을 上으로서 天에, 상업을 中으로서 人에, 농업을 下로서 地에 각각 비유하여 그 순위를 나타 내었다.

“재물을 잘 다스리는 자는 위로 천시를 잃지 않으며, 아래로는 地利를 잃지 아니하고, 중간으로는 人事를 잃지 않는다. 기구가 편리하지 못하여 남들이 하루에 하는 것을 나는 한달이나 두달 걸리게 된다면 이것은 天時를 잃는 것이다. 또 밭갈고 대중없이 하여 비용을 많이 들이고 수확을 적게한다면 이것은 地利를 잃는 것이다. 物資가 유통하지 못하고 놓고 먹는 자가 나날이 많아지면 이것은 人事를 잃는 것이다.”<sup>77)</sup>

이처럼 재물이나 재화의 효율적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공업경영이 유치하기 때문이고, 作物의 수확이 적은 것은 농업경영 기술이 不備하기 때문이며, 失職者가 늘어나고 있어도 상품유통이 안되는 것은, 상업인구를 흡수할 만한 職業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朴齊家에 의하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습득인 바, 본격적인 공업기술의 교육 및 도입을 국가시책에 의하여 10년만 시행한다

註：76) 上揭論文.

77) 朴齊家, 前揭書, p. 293.

면 10년내에 中國의 모든 기술과 知識을 다 배워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78)</sup>

그러면, 공업이 그렇게까지 황폐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고식적인 생활의식 및 그 방식에서 찾고 있다. 그는 벽돌 건축의 수명과 경제성이라는 具體的인 예에 의하여 경제정신의 육성을 저해하는 病因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은 경제생활의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품을 만드는 모든 기술이 황폐되었고, 공업에 대한 국민적 직업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시책과 制度의 확립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모두 소극적이고 무계획적 생활의식으로 因하기 때문이며, 工業制度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성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9)</sup>

공업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거국적인 권장시책이 행하여 질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磁器의 예를 들면서, 우선 국가의 품질제정법에 의하여 불합격품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며, 다음에, 공업품의 粗製濫造하는 기술자들의 기풍을 일소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工匠들의 이러한 악습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기술을 배워 정성껏 제조하여도 市場에 판매되지 않는다고, 상류층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製品의 소비를 통한 경제적 이익 및 사회적 地位를 보장해 주는 同時에 日本처럼 工匠 스스로가 기술의 영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기풍이 조성되어야만 향상이 있을 것이라 한다.<sup>80)</sup> 따라서 朴齊家의 공업기술에 대한 생각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술도입을 해야함은 물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공업기술자들이 自身の 올바른 기술정신 및 직업에 대한 자율적인 수용자세가 기본문제라고 지적한다는 점이다.<sup>81)</sup>

박계가는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自給自足的인 농업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과 도구를 개량하여 이윤을 目

註：78) 上揭書, p. 295. 權榮翼, “韓國經營理念에 關한 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순문집」, 제 12집 (1967) : p. 288.

79) 朴齊家, 前揭書, p. 73. 權榮翼, 前揭論文, p. 289.

80) 朴齊家, 前揭書, pp. 84~86.

81) 權榮翼, 前揭論文, p. 289.

的으로 하는 農業, 즉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근교에 농업시험장을 들 것을 提示하였다.

“실제로 농사에 농구를 시험하는 데에는 땅의 다소에 관계없이 서울근교에 적으면 百畝, 많으면 頃 정도로 둔전을 만들고,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에게 잘게하여 별도로 농사꾼 수십명을 뽑아서 샀을 후하게 주면서 하나 같이 영도자의 지휘를 듣게하는 것이다. 수확이 끝나면 잘되고 못된 것을 비교하여 1~2년을 하면 반드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뒤에 농사꾼을 여러 도로 나누어 파견케 한다. 이들 한 사람이 열 사람에게 농사짓는 법을 전수하고 열 사람이 백 사람에게 전수하면 10년이 못되어 風習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약간의 費用이 들겠지만, 몇 해 안가서 비용은 넉넉히 보상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 없다.”<sup>82)</sup>

이와같이 농업시험장과 農業指導要員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농업경영의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농업기술이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을 때 생산성이 向上됨은 물론이며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朴齊家は 우리의 科學技術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양인을 초빙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中國의 欽天監에서 冊曆을 작성하는 서양인들이 모두 기하학에 밝고 利用厚生에 정통하므로 국가의 관상감에서 쓰는 費用만큼으로 그 사람들을 초빙하여 대우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천문학, 도량형, 농업, 의약, 旱災, 수재, 누습에 관한 것을 배우고 광물채취법, 유리제조법, 병기제조법등을 배우게 되면 몇 해 안가서 유용한 인재들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83)</sup>

이러한 기술에 대한 사고는 상당히 合理的이고도 실용성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18세기 후반으로 이행하면서 近代的이고 先進的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84)</sup>

둘째, 資本形成論이다. 농업경제의 생산력의 한계는 북학론자들로 하여금 상

註：82) 朴齊家, 前掲書, p. 243.

83) 上掲書, pp. 223~224.

84) 李成茂, “朴齊家の 經濟思想,” 李海南 博士 華甲記念「史學論叢」(1970):p. 170.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시켰다. 이러한 思考는 자연히 새로운 상공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자본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서 柳壽垣은 두가지 方向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중세적 소상공인의 자본을 合資하여 大資本을 형성하는 合夥商業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 상인의 特權商人化였다. 후자의 경우 柳壽垣은 禁亂政策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조의 기본적 상업정책과 같이 그 억제를 주장하거나, 실학자 柳馨遠과 같이 상공업 발전을 인정하되,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農本政策에 해가 될 정도이면 重稅를 과하여 억제해야 한다는 式的 제약된 상업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촉진하는 立場에서 強調한 것이고, 그 이유는 금난전을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시전의 독점 매매권을 보장하게 되어 그 결과 稅收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sup>85)</sup>

이러한 柳壽垣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독점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시전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고, 18세기 후반에 가서는 상업계가 온통 特權商業體制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특권상업을 대폭 해체하게 하는 통공정책이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나 大商人, 大資本의 육성을 目的으로 하는 柳壽垣의 상업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상공인층의 存在가 철저히 거부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도시 및 농촌사회에서 활발히 성장하고 있었던 小生産을 배경으로 하는 小商人層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對策이 合夥商業論이었다.

합과상업의 형태는 세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sup>86)</sup> 첫째는 小資本을 합자하여 대규모의 상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소자본의 상인들이 합자하여 합과상업을 영위하는 方法은 평화적 결합에 의하고, 出資者 개개인이 균등한 출자액, 동일한 권리 및 평등한 業務分擔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합과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둘째의 형태는 대상인의 자본과 군소상인의

註：85)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서울：高麗大學校 出版部, 1974), pp. 25~26.

86) 上揭書, pp. 32~38.

자본이 결합하여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상업을 경영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양반층의 자본이 상업에 투자되어 영세상인을 고용함으로써 生産工場을 경영할 수 있으며 양반층이 상업에 종사하는 길을 制度的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번째 형태는 大商人이 小生産者層이나 小商人層을 고용하여 스스로 상품을 제조하는 形態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分散된 상태에서 생산과 판매를 겸하던 小商人 내지 小生産者層을 대상인 자본이 고용하여 일정한 제조장에서 集合勞動하게 함으로써 工程을 세분화 단순화 시키고, 이로서 생산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생산량을 높여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때에는 노임을 지불하고도 더 큰 利益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는 會計와 記帳이 따르는 合理的 方法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다.

셋째, 무역론이다. 北學論者들은 해외무역론을 역설함으로써 국내 상공업발전과 연결시키려 하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으로는 중국의 登萊와 직선으로 6백여리이고, 남해의 남쪽은 吳地方의 입구와 楚地方의 끝을 마주했다. 송나라 때에 배로 고려와 통할 때에는 明州에서 이래만이면, 예성강에 닿았다고 하니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400년 동안에 만나라 배가 한척도 오지 못했다. 지금은 면포를 입고 백지에 글을 써도 물자가 부족하지만, 배로 무역을 하면 비단을 입고 竹紙에 글을 써도 물자가 남아 돌아 갈 것이다. 지난날 日本이 中國과 貿易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교섭하여 연경 실을 사갔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居間하여 利益을 보았는데, 일본이 이롭지 못한 것을 알고서는 직접 중국과 통한 것이다. 일본은 그 밖에도 30여 나라와 무역을 한다. 제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도대체 그 술법을 왜 남에게 양보하겠는가.”<sup>87)</sup>

이는 지난날 중국과 교역을 함으로써 나라가 번창할 수 있었는데 비하여, 이제는 교역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하고 있다.

註：87) 朴齊家, 前掲書, pp. 299 ~ 300.



그러므로 국제 무역을 하루 빨리 재개하여 文物을 교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논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무역을 적극적으로 열기 위한 具體的 方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 유구, 안남, 서양인들이 와서 교역하고 있는 中國에 상인을 보내어 교역하도록 강조하고 있다.<sup>88)</sup>

## ② 倫理的 合理性

北學論者들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소중하게 여겼다. 원래 유학에서는 正德利用厚生惟和라 하여 먼저 正德을 내세우고 利用厚生은 그 후의 문제로 보았다. 이점은 이조 유학에서도 더욱 강조되어 正德과 修身의 문제에 매달린채 구체적 현실의 문제에도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이다.<sup>89)</sup> 그렇지만 북학론자들은 이러한 사상체계를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아, 이러한 연후에 비로소 利用할 수 있겠다. 利用이 있는 연후에 厚生이 될 것이요 厚生이 된 연후에야 正德이 될 것이다. 利用되지 않고서 후생할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겠는가.”<sup>90)</sup>

이것은 유학의 전통적인 이념질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正德문제를 뒤로 돌리고 厚生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北伐論에 대처하여 북학론을 내세우고 근대서양문물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한 셈이며 正德의 문제를 떠나 利用과 厚生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北學論者들이 성리학에 대한 理氣說의 경향을 볼 때, 그들의 윤리적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다.

湛軒 洪大容의 理氣說의 경향은 비교적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무릇 理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形이 없이 理가 있다」고 한다. 이미 形이 없다면서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 이른바 理란 氣가 선하면 선하고 氣가 악하면 또한 악하니, 이는 理의 主宰함이 없이 氣의 作爲에

註：88) 上揭書.

89) 金泳鎭, “實學의 近代的 轉回：韓國資本主義의 思想的 淵源, 「實學論叢」 (1975) : p. 251.

90) 朴趾源, 前揭書, p. 47.

따를 뿐이다. 만일 理가 본래 선한 것이고, 惡은 氣質에 구애된 것으로서 그(理의) 本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理는 萬化의 根本일 것이다.(그렇다면) 어찌하여 氣로 하여금 純善하게 하지 않고, 이 駁濁·乖戾한 氣를 낳아 天下를 어지럽게 하는가? 이미 善이 근본이 되면서 또 惡의 근본도 된다면 이는(理가) 物에 따라 변천하는 것인지, 전혀 主宰함이 없는 것이다.”<sup>91)</sup>

그에 의하면, 氣가 때때로 악의 현상을 낳는 것을 理가 막지 못한다는 것은 곧 理가 氣의 主宰役割을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理는 氣作用에 있어서 그 背後의 원인으로서의 주재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점에서 「형상없이 存在한다」는 그 理의 存在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여, 그는 理의 實在性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에 있어서 理는 理의 실재성과 주재성이 否認된채, 다만 氣現象에 종속된 법칙성의 의미만을 理에 인정하는 점에서 그의 理氣觀은 분명히 主氣에 속하는 것이다.<sup>92)</sup>

朴趾源이나 朴齊家는 理氣說 자체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듯한 학자이며 종래의 五行說을 비판하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따라서 朴趾源이나 朴齊家の 理氣說은 실상 이들의 五行說에 의해서 그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무릇 五行이란 하늘이 준 것이며, 땅이 함축한 것으로서, 인간이 언어쓰는 것(資)이다. …… 쇠와 돌이 서로 치고, 기름과 물이 서로 배척(蕩)하는 것도 불을 낼 수 있고, 번개로 불타며 蝗蟲도 묻히면 불꽃이 되니 불이 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相生이란 서로 子母의 관계가 아니라, 相資하여 생기는 것이다.”<sup>93)</sup>

“지금 千里되는 긴강이 있으나 불문(關)으로써 곡식을 가는 곳이 없으니 水利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것이다. 石炭의 鋼鑪를 만들지 못하여 寧海의 銅鑪를 녹이지 못하므로, 火가 火의 구실을 못하고 쇠(金)가 쇠의 구실을 못한다. 통행하는데 수레가 없고, 집짓는데 벽돌이 없으므로, 木工의 기술이 쇠

註：91) 洪大容, 「湛軒集」, 內集, 卷一, 心性問. 尹絲淳, “實學思想的 哲學的 性格”, 「아세아 연구」, 제 56호(1976) : p. 10에서 재인용

92) 尹絲淳, 前揭論文.

93) 朴趾源, 「燕巖集」, 卷二, 答仕亨五論原道書, 尹絲淳, 前揭論文, p. 11에서 재인용.

되하고 미장이의 재주가 줄어 들었다. 이것이 泊喪과 陳廢의 길로 되어가는 것이다.”<sup>94)</sup>

앞의 인용문은 朴趾源의 오행설이고, 뒤의 인용문은 朴齊家의 오행설이다. 오행이란 예로부터 만물을 이루는 다섯가지 요소로서 넓은 의미의 氣로 생각되어져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학자가 오행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氣의 문제에 치중하여 主氣的 경향을 반영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이들은 다 같이 오행을 한낱 막연한 음양내지 古式的 五要素로 받아들기를 거부한다. 이들에 있어서 오행이란 구체적인 쇠붙이나 石炭이며 水車를 돌리는 강물이다.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용되는 사물이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必須的으로 활용되어야 할 日用品으로 인식되는 것이 이들의 오행이다.

이러한 점에서 朴趾源은 과거의 오행설이 지닌 相生性을 비판하고 있으며 朴齊家是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오행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우주의 구성요소로서의 形而上學的 意味는 거의 소멸되었다. 이들은 오행을 필수적 생활용품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학문정신이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95)</sup>

이러한 思考가 북학론자들이 지닌 가치의식으로서의 윤리적 합리성이라 하겠다.

---

註：94) 朴齊家, 前掲書, pp. 282~283.

95) 尹絲淳, 前掲論文, p. 12.

### 3. 個人主義 經濟倫理觀

#### (1) 개인주의의 意味

자본주의 정신은 개인주의의 기초위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합리주의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개인주의는 사회, 국가등의 집단과 대립적 위치에서 개인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하고 집단을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sup>96)</sup>

개인주의 성립의 사회적 배경은 개인이 공동체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던 中世의 社會組織이 해체되고, 各者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결부되는 사회관계가 成立된데 있다. 近代 市民社會와 함께 발생한 개인주의 사상을 시민사회와 그 운명을 같이한다.

이와같이 근대서구 시민사회를 성립시킨 개인주의는 건전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개인주의의 초기 시기라고 불리워 질 수 있는 重商主義時代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보전과 관련되며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이라고 주장되었다’는 것에서 개인주의의 싹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점차 ‘인간개인은 독립적이며 자율적이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즉, 하나의 개인으로서 대중사회에 함몰되기 보다는 그로부터 구별되는 하나의 개체이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로 변모해 갔다는 사실이다.<sup>97)</sup>

결국 자본주의 정신에서 본 개인주의란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나의 권리도 주장될 수 있는, 공공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 (2) 北學派의 個人主義的 要素

북학파의 개인주의 요소적 경제윤리관은 당시 실학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四民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四民이라는 개념은 원래 전통적 봉건사회의 기본질서를

96) 「新經濟學辭典」, S.V. “개인주의.”

97) 헌트, 「경제사상사」, 제1권, 김양화, 김성구 공역 (서울: 풀빛, 1982), pp. 63~64. 朱東完, 前掲論文, p. 27에서 재인용.

이루는 것이며, 士農工商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계급질서였다. 또 이 질서는 통치의 기간을 이루기도 한 것이다.

전통적 봉건사회에서는 士農工商의 四民의 계급은 결코 동등한 질서계열이 될 수 없었다. 여기서 士는 지배계급이며 農·工·商은 피지배계급인 二民의 질서였다. 따라서 전통적 봉건사회에서는 ‘국민’의 개념은 없었고 ‘民’ 즉 백성의 개념이 있을 뿐이었다. 서양에서도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일반적으로 近代以後의 일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형성은 15세기 중엽이후 부터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民의 개념은 피지배 계급인 農·공·상이었고, 二元화된 계급으로서의 士와 民이 존재했던 것이다.

사실, 사대부라는 것은 讀書曰士 從政爲大夫라고 한 비와 같이 독서인인 동시에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설령 현재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등용될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등용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제자나 자식이 또 언젠가 등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독서하는 士는 곧 從政하는 大夫가 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독서하는 士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대부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sup>98)</sup>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면서 사대부의 수는 자꾸 증가되었고, 官職의 자리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여기서 사대부계급 자체의 자리다툼으로 分裂, 抗爭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士禍는 이러한 것을 표현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 종래의 사대부 계급은 세습적, 독점적 특수 집권층으로 조선조 후기사회에서의 閥閥이라는 一集團과, 영구의 몰락한 失權層으로 본래의 사대부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박탈 당하고 오직 독서하는 士로서 양분화되고 말았다.<sup>99)</sup>

원래의 조선왕조 봉건사회의 士大夫 對 庶民의 기본적 대립관계가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대부 계급 자체의 분화로 그 대립관계가 단순화 될 수는 없게 되었

註：98) 李佑成, 前揭論文, p. 7.

99) 上揭書, p. 8.

다.<sup>100)</sup> 여기서 士의 위치는 매우 흥미를 끌게 되고, 신분적으로는 별렬층과 다름이 없으나 현실적 처지는 농·공·상의 서민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별렬과 농·공·상의 중간적 위치에서 아래로 농·공·상에 가까와 질 수 있는 동시에 위로 별렬층에 結託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많은 士들 중에는 곡학아세로 출세의 길을 도모하자는 者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양심적인 士들은 피지배 대중인 농·공·상의 이익을 옹호, 또는 대변하면서 집권층인 별렬에 대해서는 통렬한 공박을 사양치 않았던 것이다. 실학이라는 학풍을 바로 이 양심적인 士들의 비판의식에서 形成되었던 것이다.<sup>101)</sup>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실학파의 四民論은 지배질서의 사회 계층론이라기 보다는 직업적 사회분화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sup>102)</sup> 선비가 국정에 참여하여 선비로서의 직책을 다 할 수 없게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농공상에 종사하여 스스로 생활방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朴齊家は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놀고 먹는 자는 나라의 큰 짐입니다. 놀고 먹는 자가 나날이 불어나는 것은 士族이 나날이 성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가 거의 온 나라에 퍼져 있으니 한가닥 科擧만으로는 이들을 다 얹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치하는 방법이 있어야 뜬 소문이 일지 아니하고 國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水陸에 교통하여 무역에 판매하는 일은 죄다 士族에게 허가하여 文書에 올리기를 臣은 청합니다. ………”

날마다 利文을 추구하게하며, 놀고 먹는 자들의 형세를 점차 줄게하고, 각 각업을 즐겨하는 마음을 주어서 豪強한 권세에 의지하는 심보를 사라지게 하면 이것 또한 風俗을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sup>103)</sup>”

이와같이 朴齊家は 士·農工商을 경화된 사회적 계급으로 보아온 전통적 사상에서의 四民論을 비판하고 직업분화의 의미로서 보았기 때문에 신분의 수직관계

註：100) 이를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士大夫( 閔 閔 士 ) , 庶民 → 農·工·商으로 表示된다. 上擧書, p. 10.

101) 上擧書.

102) 趙璣淵, 前擧書, p. 64.

103) 朴齊家, 前擧書, p. 225.

에서 수평관계로 향하는 개인주의적 요소를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柳壽垣의 「迂書」에서도 신분제 질서의 폐기를 통한 四民論을 주장하고 있다. “或曰, 양반이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나라에서 일찌기 금한 일이 없지 않느냐? 저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따름인 것이다.

答曰, 양반이 賤業(농·공·상을 뜻함)에 종사하면 국가가 영구히 錮廢하였으니, 이것이 禁制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만일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한다면 그 交游와 婚宦(혼인과 仕宦)에 장애가 없을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반드시 저 늙은 이미 平民이 되었다고 첫마디를 던지면서 더러이 여기에 상종치 않으며 무엄하지 않을까 걱정하리니 그 禁錮됨이 이에서 더할 수 있으랴.”

양반이 농·공·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원래부터 하는 일이 없으니 그 身庸을 징수코자 한들 징수할 수가 있겠는가? 丁口에 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예로부터 모든 나라가 다 지녔으며, 홀로 우리나라만이 양반을 우대한다는 것은 헛된 명분으로써 國家財政의 궁핍을 고스란히 겪고 있으니 이것이 그 잃고 있는 첫째의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그어디에도 예속됨이 없어, 가장 만만하게 貢徵하기 쉬운 사람은 오직 良民(平民)뿐이 되겠다. 양민의 부담이 편벽되게도 고통스러워지는 것도 이치로나 사세로 보아 必至의 것인바, 이것이 국가가 잃고 있는 둘째의 것이다.

또 이미 門閥에 따라 사람을 기용하고 있으니, 그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兩班이나 중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軍保의 친한 부역을 즐겨 지려 하겠는가? 부역을 충당키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국가를 잃고 있는 세째의 것이다.”<sup>104)</sup>

여기에서 柳壽垣은 오히려 양반계급이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여도, 나라의 禁錮로 인하여 상공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쳐나가야 됨을 論하고 있다.

따라서 양반계급이 농·상·공업에 종사함으로써 국가의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양반을 우대한다는 헛된 명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반계급이 自由로운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통일된 양반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個人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士農工商의 계급의식을 떠나 직업분화라는 평등 의식에 접근시켜 나가는 논리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四民平等論은 全體性이라는

註：104) 柳壽垣, 「迂書」, 總論四民. 韓榮國譯, 「實學研究入門」, pp.168~169.

들에서부터 벗어나 自由人の 개념에 접근시켜 나감으로서 개인주의적 경제 윤리 관이라는 맥락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 4. 人間主義 經濟倫理觀

##### (1) 人間주의의 意味

인간주의<sup>105)</sup>는 인간적인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인간답게 하려는 本性을 존중하고 옹호하려는 입장이다. 인간주의는 인간다운 것의 實在를 주장하고 실현하려고 한다.

인간주의는 르네상스를 계기로 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세계사적 존재를 획득하였다. 르네상스 정신운동은 중세 봉건제도의 비인간적 (inhuman)인 重臣에서 인간성을 해방하였고, 그래서 회람인의 조화정신을 다시 찾아 체득하도록 하였다.<sup>106)</sup>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낡은 내세주의적 세계관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인류의 해방을 부르짖었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였다. 또한 중세 기독교의 교리로부터 해방시켜 건전한 인간성의 자유로운 발휘를 주장했는가 하면 수도원 생활의 위선적인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인간주의 사상은 새로운 중산적 시민계급으로 하여금 市民社會를 건설하려는 위대한 이론적 지주가 되었다. 따라서 17-18 세기의 人間主義로 흘러오는 동안의 특징적인 것은 봉건적 또는 계급적 특권의식으로 부터 人間性의 회복과 해방을 부르짖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여기서 근대적 산업자본주의를 일으킨 중산적 시민계층이 지녔던 자본주의 정신이 인간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로도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sup>107)</sup>

註：105) 인간주의 (humanism)의 기원은 게르만 민족들이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전인 회람시대에까지 소급된다. 인간다운 즉, human 과 주의를 표시하는 ism이 합해서 된 말이다. human은 라틴어의 humanitas에서 왔고 로마의 철인 키케로가 회람어 파이디아 (paideia)를 휴머니타스라고 옮긴데서 연유한다.

최재희, “현대 한국 사회와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제9집 (1982.7):p. 400.

106) 최재희, 「인간주의 윤리학」 (서울:일신사, 1978), pp. 176~177.

107) 朱東完, 前揭論文. p.30.



## (2) 北學派의 인간주의적 요소

종래의 자연을 天의 의지를 반영하고 人間의 윤리를 규제하는 규범적 존재로 파악할 때, 자연도 실상 해방의 원리 (liberating principle) 가 아니라, 규제의 원리 (regulating principle) 였다.<sup>108)</sup> 실학에 의해 객관적 자연관이 수립됨으로써 이제 인간의 윤리는 自然의 思辨的 원리에서 해방되어 사회적인 실천윤리로 길을 터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학론자들은 우선 위선적이고 非生産的인 형식윤리를 혁파함으로써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향하는 인간주의를 추구하였다. 朴趾源의 양반전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양반이란, 명칭이 여러가지여서 독서하면 士라 하고, 벼슬하면 大夫라 하고, 德이 있으면 君子라 한다. 무관은 서쪽에 서고, 문관은 동쪽에 서게 되어 양반이라 하였으니, 네 임의대로 할 것이로되, 더러운 짓을 멀리하고 옛 사람을 본받아 뜻을 숭상하고, 5更에 항상 일어나서 硫黃으로 등잔불을 켜놓고 눈은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모아 불기를 고이고서 「東萊博議」를 얼음에 박밀듯이 외우며, 배고픔을 참고 추위에 견디어 가난을 말하지 아니하며 걸음을 느릿느릿 걸되 신을 질질 끌고, 손에 돈을 잡지 말고 쌀값을 물어보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sup>109)</sup>

위의 내용은 가난하였지만, 일도하지 않고 독서로 소일하면서 관청의 환곡을 받아 먹었다가 관찰사의 순시중 발각되어 감금을 당했을 때, 그 동네 富者가 환곡을 대신 갚고 양반의 지위를 샀을때 양반이 지켜야될 여러가지 내용을 文券으로 작성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켜 보던 부자가 실망한 듯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

“양반이 다만 요것 뿐이요? 나는 양반이 신선같다고 들었는데, 진실로 이런 것이라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군, 바라건데 疇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오” 하니 이에 다시 文券을 만들어서

“무릇 하늘이 백성을 내시매 그 백성이 오직 넷이니, 四民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士로서 양반으로 칭하면 이로움이 한이 없다. 농사도 안 짓고 상업하지 아

註：108) 金泳鎭, “實學思想의 勃興”, p. 171.

109) 朴趾源, 「燕巖集」, “兩班傳”, 宋贊植, 「實學研究入門」, pp 203~205. 이하 인용은 같은 곳에서 출처함.

니하여도 文史를 대략만 섭렵하면 크게는 文科에 합격되고 ……窮士가 시골에 살더라도 오히려 능히 세도를 피울 수 있으니, 이웃의 소로 먼저 논을 갈고, 마을의 농민을 붙잡아 밭을 매더라도 누가 감히 나를 거만하다고 하겠는가?” 여기에 부자는 혀를 내두르면서

“‘그만 두시오, 그만 두시오 맹랑하구려, 나를 도둑으로 만들 작정이오?’ 하고 머리를 흔들며 가버렸다.”

여기에서 양반을 代表하는 形式主義와 부자가 나타내는 인간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양반이란 지위를 사고자 한 것은 단지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하는 不利益, 즉 비인간적인 자기억제와 侮辱를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팔 수도 없는 양반의 지위를 팔아 놓고서 또한 양반이 해야 할 일을 열거하는 것을 본 부자의 심정은 바로 양반의 행위 그 자체가 도적이냐 다름 없음을 깨닫고, 도중에 머리를 흔들며 나가버린 것이다.<sup>110)</sup>

북학파의 인간 주의적 경제윤리는 허생전을 통해서도 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다.

“번씨가, ‘애당초 내가 만 냥을 주리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하셨나요?’”

‘그대뿐 만이 아니라 만 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네, 내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벌 수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는 있었으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낸들 어떻게 틀림없음을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福이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더 큰 富를 누릴 수 있는 자이네. 따라서 이는 하늘이 명한 것이니 안줄 수 있겠는가? 만 냥을 얻은 다음, 그 복을 정해진 운명대로 장사 했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네. 만약, 내 의사대로 일을 시작했더라면 成敗를 어찌 알 수 있었는가’<sup>111)</sup>

허생의 사심없는 마음과 그러한 사업의 동기가 非利己的이었기 때문에 他人의 대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실한 운명론자가 실재한다면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각계로 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112)</sup>

註：110) 李家源, “兩班傳 研究”, 「大東文化研究」, 第1輯 (1963) : p. 183.

111) 朴趾源 「熱河日記5」, “여관에서서의 얘기”, p. 30.

112) 權榮翼, 前揭論文, p. 283.

즉, 그의 사심없는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때 전라도 변산지방에 수천명의 도둑떼가 들끓고 있었다. 그래서 州郡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도둑들도 함부로 노략질을 하러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바야흐로 굶주림이 극도에 달하였다.

허생은 도둑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우두머리를 만나 설득시켰다.

‘너희들 천명이 천냥을 훔쳐 분배한다면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는가?’

‘그야 한 사람당 한 냥이죠’

‘그대들은 아내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지을 전지는 있는가?’

‘참 딱하시군요, 아니 전지가 있고 아내가 있다면 뭇 때문에 고달프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요’ .....

‘이제 너희들은 평민이 되고 싶어도 이름이 도둑의 명부에 올랐으니 갈래야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각각 백 냥씩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소 한 마리씩을 사가지고 오너라.’<sup>113)</sup>

孤島에서의 허생을 1차적으로 생산기초에서의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었고, 群盜를 선도하여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그의 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에 의해 생산의 人的要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다. 소탈하고 폭넓은 인간주의는 하류층과의 대인관계에서 동지적 결합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의 인포멀한 조직력은 완전한 성공을 거둠과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群盜의 정착, 결혼 및 영농자금을 위해 투하함으로서 모든 의무를 완수하고 있었다.<sup>114)</sup>

이처럼 인간주의를 내세우는 북학론자들은 당시 정치권력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었고, 바로 그 저항은 하층사회의 인간군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었다. 朴趾源의 「馬租傳」에서 부귀자에게는 아랑곳 없이 貧賤者에게만 강요되던 봉건적 층의문제, 「穢德先生傳」에서는 不義로 축재하여 호의호식하는 자들의 내면적 불결성을, 「閔翁傳」에서는 서울의 유식배, 「虎叱」에 있

註：113) 朴趾源, 前掲書, pp. 25~26.

114) 權榮翼, 前掲論文, p. 248.

어서 僞儒의 음험한 이중성, 앞에서의 「許生傳」에서는 벌벌총 정치권력의 폐쇄적 독점성과 당시 정치현실에서 빚어지는 부조리를 폭로, 공격한 것이었다. 항상 볼 수 있었던 양심적인 儒者의 그 차별적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없이 단순히 지배층으로서의 의무감에 입각된 저항과는 그 사상적 질에 있어서 엄격히 다른 것이었다. 이와같이 北學論者들의 근대 휴머니스트적인 倫理意識내지 인간관은 개인주의적 사고와 연결되면서 개방성을 띤 세계관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sup>115)</sup>



---

註：115) 李東歎, “燕巖 朴趾源”, 申一澈外 者, 「韓國代表思想家」(서울: 玄岩社, 1967) pp. 278~279.

## VI. 結 論

지금까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 가운데서 北學派에 주목하여 그들이 경제를 바라보았던 倫理觀을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조선왕조 후기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요, 그렇다고 봉건왕조가 해체될 정도로 위기가 조성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변동은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시대사조도 近代志向意識이 나타나고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本研究는 조선왕조 후기의 근대지향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던 실학사상에서, 특히 상공업론을 주장함은 물론 기술, 자본형성에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계급타파를 통한 인간성을 되살려보려고 했던 북학론자들의 경제윤리관을 살펴보았던 것이다.

우선 조선후기 사회경제 변동의 흐름에서 실학이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북학과의 등장과정을 고찰하여 보았다. 物的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조선왕조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농민층을 분화시켰고, 都賈商業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유통을 가져왔다. 그와 아울러 신분층의 동요를 낳기도 하였다.

社會經濟的 변동과정과 함께 조선왕조의 통치이데올로기였던 性理學 思想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리학은 조선조 후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구실을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倫理意識의 변화는 실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현실을 중요시하는 合理的 사고를 形成해 나갔던 것이다.

물론 성리학 자체가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성리학을 적용시켜가는 과정에서는 지배층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처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利用厚生을 강조했던 북학론자들에게서 具體的으로 자본주의의 정신적 요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정신의 一般論에 입각하여 考察하였다. 물론 자본주의 정신요소를 이루는 合理主義, 個人主義, 人間主義는 서구의 中産的 市民階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유형이 北學論者들에게도 存在하고 있었음은 그들의 경험과학적 합리성에 토대를 둔 기술론, 자본형성론, 무역

론에서 찾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合理性으로서의 利用厚生正德論이나 음양 오행설의 태도에서 엿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주의에로 향하는 四民論이나 인간성의 해방을 그린 문학작품에서 개인주의, 인간주의 모습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북학론자들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정신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계속하여 이어져 왔기 보다는 단절성의 의미가 더욱 컸던 것이었다.<sup>116)</sup> 이들의 사상이 후일 개화파에 영향을 준 것도 周知의 사실이지만, 당시 조선왕조의 봉건적 틀속에서 벗어나 近代社會로 향할 수 없었던 점은 우리가 흔히 서구에서 말하는 中産的 市民階層이 거의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研究를 통하여, 조선왕조 사회의 강한 봉건적 구조속에서도 실학자들, 특히 북학론자들이 近代로 향할려는 「自生的 近代性」의 강한 意志를 찾아 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

註：116) 金泳鎬, “實學의 近代的 轉回：韓國資本主義의 思想的 淵源,” p.240.

## 參 考 文 獻

### ○ 單 行 本

-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 서울:高麗大學校 出版部, 1974.
- \_\_\_\_\_, 「韓國近代史」,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5.
- 姜萬吉, 李東歡, 金泳鎭, 「韓國의 實學思想」, 서울:三省出版社, 1983.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14」, 서울:탐구당, 1975.
-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77.
- 「孟子」, 김경택역, 서울:한국자유교양추진회, 1969.
- 朴齊家, 「北學議」, 李翼成譯, 서울:乙酉文化社, 1983.
- 朴趾源, 「熱河日記」, 1~5,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민족문화문고, 1980.
- 박충석, 유근호, 「조선조의 정치사상」, 서울:평화출판사, 1982.
- 朴玄採, 「資本主義發達史研究序說」, 서울:한길사, 1981.
- 안토니기딩스, 「資本主義와 現代社會理論」, 林榮一, 朴魯譯, 서울:한길사, 1982.
-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 서울:一潮閣, 1983.
- 오오쓰카히사오,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송주인 옮김, 서울:한빛, 1981.
- \_\_\_\_\_, 「공동체의 기초이론」, 이영훈역, 서울:돌베개, 1982.
-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서울:一志社, 1977.
- 元裕漢, 「朝鮮後期貨幣流通史」, 서울:正音社, 1979.
-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一潮閣, 1977.
- 丁若鏞, 「牧民心書 I」, 茶山研究會譯註,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4.
- 鄭允炯, 「西洋經濟思想史研究」, 서울:創作과 批評社, 1981.
- 趙璣潛,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서울:대왕사, 1977.
-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서울:一潮閣, 1977.
- 千寬宇 韓祐勳, 洪以燮等, 「朝鮮實學의 開拓者 10人」, 서울:新丘文化社, 1983.
- 최재희, 「인간주의 윤리학」, 서울:일신사, 1978
- 韓國史研究會, 「韓國史入門」, 서울:知識産業社, 1982
- 韓祐勳, 「李朝後期 社會와 思想」, 서울:乙酉文化社, 1981.

## ○ 論 文

-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成長.” 「한국사연구」, no.1, 1968.
- 具本湖. “國家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韓國資本主義의 發展과 政府의 역할.” 「思想과 政策」. vol. 1, 1984.
- 權榮翼. “韓國經營理念에 關한 史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no.12, 1967.
- 金泳鎭. “實學의 近代的 轉回 : 韓國資本主義의 思想的 淵源.” 「實學論叢」, 1975.
- 柳承國. “韓國의 儒學思想概說.” 李相殷, 李丙燾譯. 「韓國의 儒學思想」. 서울 : 三省出版社, 1983.
- 박충석. “동양사회 인식에 대한 논문.” 「현상과 인식」, 4, no.4, 1980.
- 宋柱永. “燕巖 朴趾源의 經濟思想.” 「아세아연구」, 10, no.1, 1967.
- 심영희. “의미 해석적 합리성과 합리화.” 「현상과 인식」, 4, no.4, 1980.
- 심윤종. “자본주의, 합리성 그리고 인간.” 「현상과 인식」, 4, no.4, 1980.
- 양참삼. “소명, 합리성 그리고 인간.” 「현상과 인식」, 4, no.4, 1980.
- 尹絲淳. “朴世堂의 實學思想에 關한 研究.” 高麗大亞細亞 問題研究所 韓國研究室編. 「實學思想의 探究」. 서울 : 玄岩社, 1981.
- . “實學의 哲學的 性格.” 「아세아연구」, no. 56, 1976.
- 李家源. “兩班傳研究.” 「대동문화연구」, no. 1, 1963.
- 李東歡. “燕巖 朴趾源.” 申一澈外著. 「韓國代表 思想家」. 서울 : 玄岩社, 1976.
- 李成茂. “朴齊家の 經濟思想.” 李海南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70.
- 朱東完. “儒教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석사학위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국학대학원, 1982.
- 崔文煥. “막스·웨버의 中國社會 및 儒教觀.” 「대동문화연구」, no.1, 1963.
- 최재희. “한국사회와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no.9, 1982.

## ○ 辭典·英書

- 「新經濟學辭典」. 서울 : 大學堂, 1980.
- 「世界哲學大辭典」. 서울 : 教育出版社, 1980.
- 「韓國史大辭典」. 서울 : 教育出版會社, 1979.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l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Abstract**

**A Study of Economic Morality-Thought  
of the school of Bukhak**

**— in relation to the spiritual factors of capitalism —**

**Lee Seung — Gook**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h Seong-Joon*

This thesis made a study of economic morality-thought with respect to the school of Bukhak in Silhak which rose in the Late Yi dynasty, focusing the spiritual factors of capitalism.

A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terconnects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capitalism in Korea, generally, is formed opening a port (1876).

But modern-oriented factor, had begun to bud spontaneously in socio-economic field in Korea, before they were influenced by foreign cultures.

These modern-oriented factors can be searched for in the Late Yi dynasty in the post-war days of Imjin and Buyngja, and the socio-economic change in those days was the time that showed the bud of earlier capitalistic mode in production.

Silhak was the new trend of intellectual thought which produced the modern-oriented consciousness in the late Yi dynasty, and especially, the school of Bukhak among the scholars of silhak arose the modern-oriented consciousness strongly.

The school of Bukhak took a serious view of the actuality.

They advocated technical renovation, capital formation and theory of foreign trade on the basis of rationalism, asserting human liberation from the feudalistic idea in Yi dynasty.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5.

These thoughts of the school of Bukhak can be connected with the spirit of capitalism. In a common sense, the spirit of capitalism was emphasised by Max Weber.

Max Weber gave chief attention to the middle class who built up a civil society, and searched for the spirit of capitalism from their sound thoughts.

He, especially, emphasised the rationalism (or rationality) in the spirit of capitalism. His rationalism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three; Rationalität der empirischen Wissenschaften, Rationalität in der sinninterpretation and Rationalität in der Ethik.

But he emphasised two; Rationalität der empirischen Wissenschaften and Rationalität in der Ethik.

The spiritual factors of them are also humanism and individualism which is, sound meaning on the ethic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se three factors (rationalism, individualism and humanism) can be prescribed for the main causes in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for that reason, these factors were prescribed by the school of Bukhak in Silhak.

First, technical renovation, capital formation and theory of foreign trade in the school of Bukhak imply Rationalität der empirischen Wissenschaften in rationalism.

They determined their attitudes toward utilization and public welfare rather than true Morality and the Five Elements (metal, wood, water, fire, earth) in Rationalität in der Ethik.

For individualism factors, they pleaded the equality of the four classes (the nobles, farmers, artisans and merchants) in the country, and humanism factors, asserted their literary works.

But, the economic morality-thoughts in the school of Bukhak that hold the spirit of capitalism could not be gone toward modernization, because, middle classes who accepted their thoughts would little form. Nevertheless, the spontaneous modernity in the school of Bukhak can be set a high value.